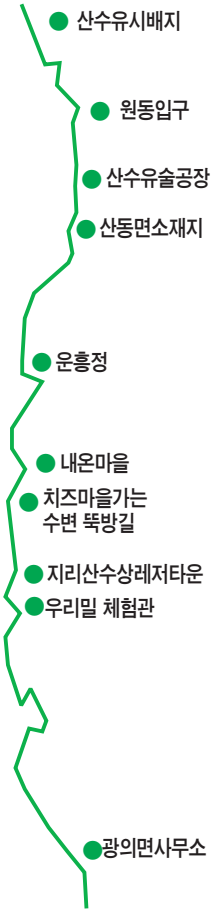




<8> 구례 산동면~ 광의면 백의종군로

■전남 백의종군로 구간 (124.2km)

코스	세부구간	길이	비고
연계구간	남원연계구간	2.5km	
	계척산수유시배지 →산동면소재지	2.7km	
	1(12.7km)	5km	
2(10km)	→지리산수상레저타운	1km	
	→우리밀체험관	4km	
	→공설운동장	10km	
3(7.5km)	→송인필리각	0.5km	
	→구례현청	0.7km	
	→문척교	1.3km	
4(8.8km)	→동해나루	5km	
	→용문교	1km	
	→발산마을 정자	5km	
5(10.7km)	→황전면사무소	2.8km	왕복(회근) 구간
	→용암매실밭	3km	
	→상동	4.5km	
6(12.5km)	→송치재(송원)	0.6km	
	→화구마을	2.6km	
	→신촌마을	2.5km	
7(14km)	→서면파출소	5km	
	→순천부	5km	
	→구례현청-서시나루	1.5km	
연계구간	→환경관리소	3km	
	→운흥정	1km	
	→운조루	3km	
연계구간	→단산마을	1.5km	
	→토지중등학교	0.5km	
	→석주관	3.5km	
연계구간	하동연계구간	6km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로 전남 구간 중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수상레저타운~구민저수지 구간은 쫓소 방목장과 벽천(壁泉), 호젓한 뚝방 자전거 도로까지 조성돼 이 시기 봄 바람을 맞으며 걷기에 좋다. 방목장에 올라서면 빛꽃과 개복숭아 나무가 심어진 가로수 산책길을 따라 구례를 전체가 훤히 보인다.

12.7km...쫓소란 만개 채비하는 산수유 봄마중 백의종군 호국·극기 정신 기르는 교육·체험의 길

1597년 4월 초하룻날 충무공 이순신은 의금부에서 풀려나 백의종군(白衣從軍)에 오른다. 두번째 백의종군으로, 선조의 공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와 고문을 받은 지 28일 만이다.

충무공이 백의종군했다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기까지 걸었던 그 길은 413년이 흐른 현재, 그의 사상을 담아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탐방로'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백의종군로' 조성사업이다. 백의종군로 정비사업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조정의 모함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했다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수되기 직전(1597년 4월 1일부터 8월 3일)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으로, 백의종군기간 중 전남도내 구간은 124.2km에 이른다.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 시배지를 시작으로, 나라에서 버림받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면서 충무공이 밟았던 구례와 순천의 길은 나라와 백성을 지극하게 섬기는 충무공의 정신이 곳곳에 서려 있다. 전국 곳곳에 옛길들이 발굴되거나 이어지고 있지만, 난중일기에 생생하게 기록된 전남 '백의종군로'만큼 역사의 자취가 뚜렷한 곳도 없다.

전남도와 구례군 등은 최근 이 길에 나무터를 복원해 나뭇바를 띄우고 백의종군 도중 유숙(留宿)했던 장소를 만드는가 하면 험터와 야영장을 조성해

온갖 모함과 수난속에서도 백의종군한 충무공의 정신을 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곳곳에 쫓소란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고 개복숭아 나무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길로 꾸며 볼거리를 늘리는 한편, 안내판과 안내지도를 마련해 누구나 즐겁게 걷기 좋은 백의종군한 충무공의 호국·극기 정신을 기르는 교육·체험의 길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의종군로 전남 구간은 모두 7개 코스로 나뉘며 첫 걸음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시배지부터 시작한다. 특히 산수유 시배지를 시작으로, 구례군 서시천 뚝방길을 따라 지리산 수상레저타운을 거쳐 우리밀 체험관~구례군 광의면 사무소로 이어지는 12.7km 구간은 새봄을 알리는 이 시기, 걷는 게 제격이다. 굳이 역사의 흔적을 꺼내지 않더라도, 노란 파스텔 톤 옷을 입은 산동골을 배경으로 걷는 뚝방길은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하는 봄꽃 감상 코스로 손색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예전 이 길을 따라 걸으며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특히 어머니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백의종군길을 서둘러야 했던 슬픔을 가다듬지 않았을까.

산수유의 시배지에는 1000여년 전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었다는 이른바 '산수유 시조나무'가 남아 있다. 시목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서 해마다 봄이면 수채화 물감 같은 노란 색조의 꽃을 피워내고 있고 시배지를 중심으로 최근 조성된 시목공원은 역사적 자취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봄 나들이에 제격이다.

동행한 정양호 전남도 관광개발담당계 직원은 "전남 백의종군로 구간은 전 구간을 도보로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나무터를 복원하고 띠배를 띄우는 등 백의종군로 구간에 남아있는 역사 자원과 관련 유적들의 정비를 통해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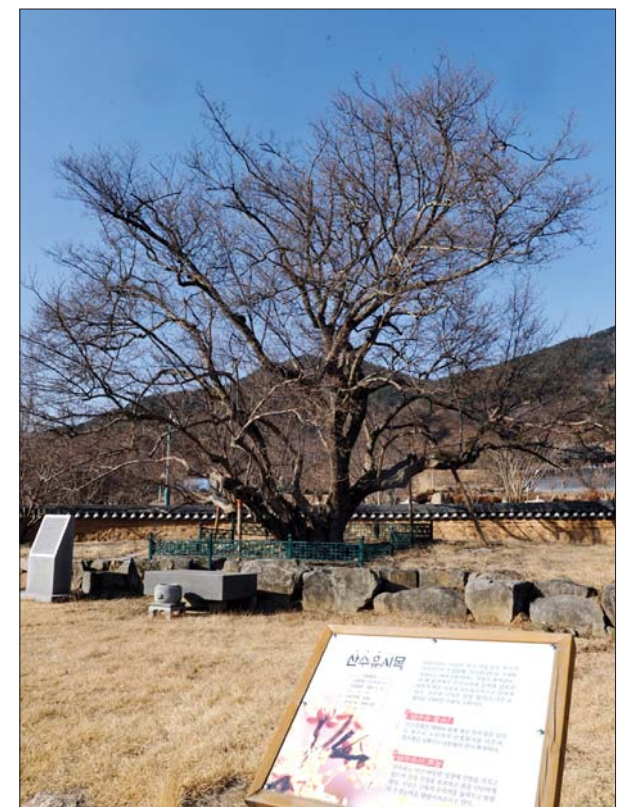
시목공원을 지나 산수유 숲공장을 거쳐 산동면사무소까지 이르는 길은 벚꽃, 철쭉 등 화려한 봄꽃에 이름 모를 들꽃까지 피어나 걷는 내내 눈이 즐거운 코스다.

논두렁 밭두렁을 끼고 이어지는데다, 차량이 지나 다니는 주요 도로가 아니라 편하게 걷기에 충분하다. 운흥정 계곡에서 물다리를 조심조심 건너다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행복함도 만끽할 수 있다.

서지천을 따라 지리산 수상레저타운~치즈마을~구만저수지까지 이어지는 길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 바람을 느끼며 나들이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특히 치즈마을 인근 산책로는 쫓소 방목장과 벽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벽천(壁泉), 구례를 전체가 훤히 보이는 등산로까지 조성돼 있다.

치즈마을을 지나 우리밀 체험장부터 광의면 사무소로 이어지는 길은 서지천 물길을 따라 걷기에 운치 있는 길이다. 자전거를 대여해도 좋고 마냥 걷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리산 노고단이 눈 안에 들어온다.

전태준 구례군 관광개발담당은 "4~5월이면 개복숭아 나무와 벚꽃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탐방로"라며 "인근 면사무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 시배지. 1000여년 전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었다는 이른바 '산수유 시조나무'가 남아 있다.

**L'Ecole du Vin '에꼴 뒤 뱅' 입문과정 : 6기 수강생 모집**

광주 와인 문화 일번지 금수장관광호텔에서 진행되는 와인 스쿨 '에꼴 뒤 뱅'의 입문 과정이 오는 3월 8일(화)에 개강합니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소 와인을 배우기 희망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강좌를 통해 와인이 주는 큰 행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와인파트너 홈페이지(www.winepartner.c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부터 총 4회 ; 화요일 오후 7시 50분-10시  
 장소 : 금수장관광호텔 (계림동,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사정에 따라 강좌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원 : 선착순 18명 / 강의비 : 20만원 문의 : 금수장관광호텔 062-525-2111

강사 : 권 흥 식

- 금수장관광호텔 전무 / 소믈리에
- 한국소믈리에협회 운영위원
- 한국소믈리에학회 상임이사 (소믈리에 자격시험 검증 위원)
- IBWT(인터네셔널 보르도 와인 에듀케이터) 인증 와인 강사

3월 19일 까지 **SALE 30%** 클래식 소파 식탁

**클래식 침실** **엔틱 식탁·좌탁** **엔틱침대·TV거실장**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 상 무 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메디피아 산척병원 옆 400평) ☎ 062-382-0022  
 | 문화전당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062-226-7567

**홍스페이스** SPACE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